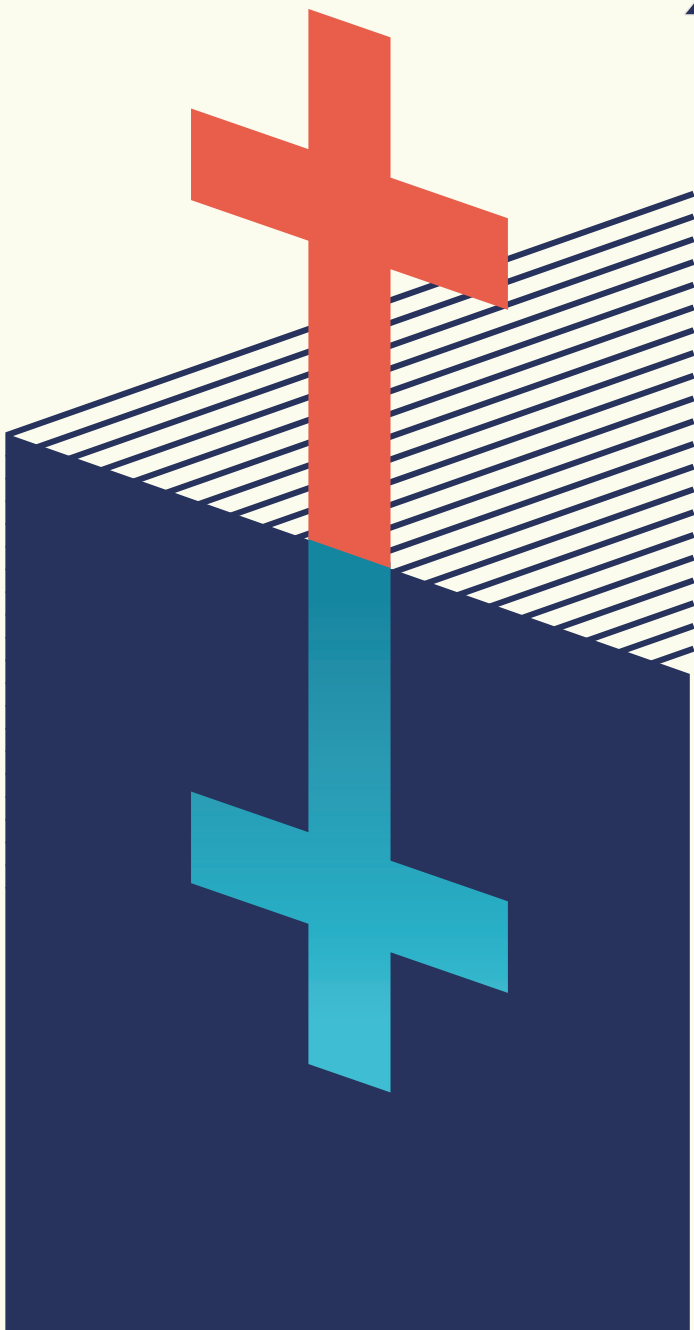


2024년  
2월 11일

로마서 강해  
갈릴리 공과



## 셀원들을 환영 - 얼음깨기(Ice-breaking)

1. 설 명절 음식 중 좋아하는 음식 2가지는?
2.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것을 나누어봅시다.

## | 찬양 -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 | 대표기도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롬 8:12-17)

지난 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안에 계신 존재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실재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존재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①빛진 자 ②하나님의 자녀 ③상속자

### 1. 나는 빛진 자입니다

**롬 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빛진 자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으므로 우리는 빛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빛진 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①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②공짜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③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④신의 대속적 죽음으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부패한 내 존재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며 1장에서 빛진 자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롬 1:14-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만큼 빛진 자 의식으로 살았던 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자신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의 삶과 정신에 일대 전복과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의 화려했던 가문과 지식과 이성의 영광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은혜 인식!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빛진 자 의식! 남겨진 자로서의 책임 의식! 이 모든 거룩한 부담감들이 바울의 삶을 급진적으로 바꾸어 갔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의 길로 안내한 것입니다.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빛진 심정은 더 깊어만 갑니다.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의 죄가 정죄하고 판단할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

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죄가 긍휼감으로 보이고 애통함으로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이것이 빛진 자의 삶입니다.

빛진 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는데 탕감 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탕감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롬 1:14-15**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한 사람이 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주인은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 받은 종이 자신에게 백 달란트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당장 갚으라며 화를 냅니다. 그 동료가 꼭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사정하지만 종은 그 동료를 감옥에 쳐 넣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탕감 받은 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만일 이 종이 빛진 자 의식이 있었다면 자기 동료를 향한 긍휼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점검 질문

1. 바울은 우리가 왜 빛진 자라고 말씀하였나요?

## 2.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죄를 씻어 주시고 피를 바꿔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바꿔 주십니다.

예수님 이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요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을 움직여 확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존 파이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죄를 죽이도록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낫다는 것을 믿으며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확실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버지가 죄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이 자녀들에게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들 속에 임하여 아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도 계셔서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더불어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입양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입양된 양자는 아버지의 권리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친자에 못지 않은 지위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리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갈 4:5-6**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종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노예로 만듭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아빠와의 친밀감을 갖도록 해줍니다. 아빠와 있는 시간이 항상 즐거운 이유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만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친밀하게 경험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 | 가가와 도요히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종교가입니다. 고베 지역 해운업자의 서자, 즉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본처 자녀들로부터 굉장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자랍니다. 어느 날 구세군 신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라고 전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 같은 첩의 자녀도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그 길로 전도대를 따라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평생 즐겨 하던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첩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 감격 아십니까? 평생 첩의 아들로! 종의 아들로 한 맺힌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전능하신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양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자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인식입니다. 아들은 되었는데 아들답지 못하고 아들은 되었는데 아들로써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겉만 양자이지 속은 여전히 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하늘 왕의 자녀된 우리는 저급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양자된 것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양자는 부모를 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함으로 완벽한 아들로 입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하게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은 친아들 예수에게 주신 권세를 똑같이 양자에게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위대한 존재입니다.

#### 점검 질문

1.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되었나요?
2.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3.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산이고, 그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양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분께 속한 생명! 그 분께 속한 새창조! 그 분께 속한 부활! 그 분께 속한 치유! 그 분께 속한 영생! 심지어 그 분께 속한 세상까지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고전 3:21-23)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 18:2**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체에 빚진 자처럼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저차원의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고난에 비하면 영광은 너무 큰 것이기에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너끈하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눅 9: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행 14: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신자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다 보면 저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고난을 받아라 =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럴지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15:18-20**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  
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  
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  
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모세는 애굽에서 신앙생활 대충하며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히 11:24-25).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손해이고 힘들지라도 열매  
가 다릅니다. 열매는 영광입니다. 환희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 웃습니다. 신  
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좌우 곁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한 강도는 바로 그 순간  
낙원에 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대충 신앙생활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되지 않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고난을 이겨내며 신앙생활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열매! 영광의 환희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 영광은 그 어떤 고난이나  
유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입니다.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이 견고하게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과 유혹도 너끈히 이겨내길 소원합니다.

#### 점검 질문

1.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게 되나요?

#### 적용 질문

1.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 공동체 기도

1. 각 부서 수련회에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3. 1-2월 말씀을 읽고 암송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 내가 매일 기쁘게

H. Buffum

D. M. Shanks



**NOTE.**

